

리아호나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현재와 미래의 여러분 가족을 위한
아름 가지 원리, 12쪽

여성과 남성 모두의 중요성, 24쪽

아부르토 자매: 하나님이 나의 가족을
치유해 주신 방법, 26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필리핀 카르멘





AKRI: GETTY IMAGES

보홀주에 위치한 카르멘 지부는 타그빌라란 스테이크 소속이며, 필리핀에 있는 1227개의 와드/지부 중 하나이다. 다음은 필리핀에 있는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이다.

교회 회원 수
(인구 134명당 1명)



785,164

107



스테이크, 그리고 지방부 68개, 와드 및 지부 1,227개

선교부

22



2



운영 중인 성전 수, 공사 중인 성전 1곳, 발표된 성전 4곳

선교사 훈련원

1



1967

최초로 선교부가 조직되다

1969

세계에서 침례 수가 가장 높았던 나라로 기록된 해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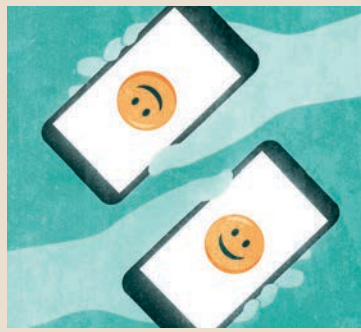
최초로 스테이크가 조직되다

2017

교회에서 100개의 스테이크에 도달한 다섯 번째 나라가 된 해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교회 유적지에 관해 더 알아볼 수 있다.



「와서 나를 따르라」를 통한 성역
8



오늘날의 가족
선언문
12



성전 의식을 통한 치유의 기적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26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중요한
존재임을 자녀와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24

영원한 가족의 일원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과 더불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봉사하면서 직접 목격한 바에 따르면,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묘사된 이상적인 가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랑 많은 영원한 가족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족 선언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며, 지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 각자는 형제 자매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필멸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환경도 이생에서는 절대 완벽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26쪽에서 저는 어떻게 성전 사업이 회장 양편에 있는 제 가족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가져다주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 선언문에 나오는 원리들을 더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12쪽부터 시작되는 기사를 통해 가족 선언문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부모님께서서는 당신들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부디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가족 구성원들이 그분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십시오. 우리의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각자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늘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목차

- 5 만약 우리 가족이 이런 가족이 아니라면? ☹
- 6 신앙의 초상 ☹
케빈 헨더슨과 켄드라 헨더슨
하나님은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헨더슨 가족을 복음으로 인도하셨다.
- 8 성역의 원리
『와서 나를 따르라』를 통한 성역
『와서 나를 따르라』는 와드, 가정, 공과반에서 사람들이 단합하고 서로 성역을 베푸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것이다.
- 12 가족 선언문 안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아보십시오
가족 선언문을 더욱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
- 24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중요한 존재임을 자녀와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
남성과 여성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도움이 되는 9 가지 조언.
- 26 성전 의식을 통한 치유의 기적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아부르토 자매가 성전 사업을 통해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그리고 구주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치유하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 32 후기 성도의 소리 ☹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도록 영감을 받은 한 교사. 보내지 않은 편지를 통해 받은 응답. 오빠의 교통사고에서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함께 몰몬경을 읽음으로써 더욱 가까워진 어머니와 아들.
- 36 와서 나를 따르라: 몰몬경 📖 ☹
이 주간 기사들은 여러분의 이번 달 몰몬경 학습을 뒷받침할 수 있다.
- 40 내 연차 대회 노트: 2020년 4월 연차 대회 ☹

🕒 짧은 기사

📖 『와서 나를 따르라』 지원



표지 사진: 코디 벨

섹션

청년 성인

42

우리는 각자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혼자 헤쳐 나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사랑과 힘을 얻고 교류하기 위해 구주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청년 성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읽어 본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3 단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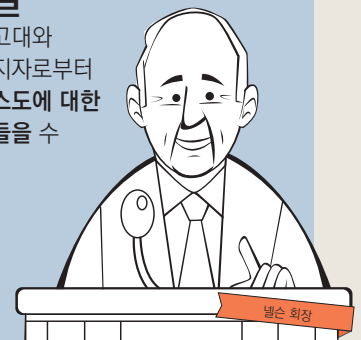
청소년

연차 대회 학습 노트

연차 대회 학습 노트를 사용하여 대회를 준비하고 기록한다.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은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9월 온라인 전용 기사



나는 계속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은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은 이렇게 도울 수 있다

산텔 에이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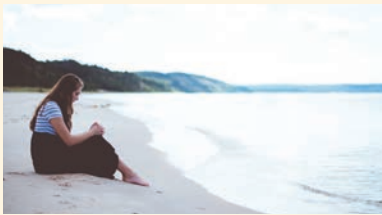
우울증을 경험한 한 청년 성인이 자살이 아닌 삶을 선택하도록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한다.



난임을 통해 가족 선언문에 대한 더 강한 간증을 갖게 되다

카레나 카스탈로

한 회원이 난임과 입양에 관한 자신의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그녀의 가장 큰 시련이 어떻게 그녀의 신앙을 강화했는지를 이야기한다.



마침내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내가 어둠 밖으로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셨다

니파이 탕갈린

필리핀의 한 청년 성인이 정신 질환에서 치유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2020년 9월호 제57권, 제9호 리아호나 16724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아터 예프 우흐토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쿨, 다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켈렌드, 개릿 더블유 공, 율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핑크
고문: 베키 크레이븐, 쉐런 윙버그,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윌터 예프 곤살레스, 래리 에스 캐처, 쟈 이 뉴먼, 아드리안 오초아, 마이클 티 링우드, 번 피스텐펠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트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에나시 시 다릴라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웨드워드, 매튜 디 플러튼, 커트

에이치 가브, 존 라이언 켄슨, 에런 존스톤, 샬럿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조슈아 제이 퍼키, 잭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민디 셸루, 로리 풀러 소사, 차켈 워들레이, 머리사 위다슨
편집 인턴: 애널리스 가드너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레스, 맨디 벤들리, 시 킴볼 보트,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알레니 레게, 마크 더블유 로빈슨, 케이 니를 워크호스트
디자인 인턴: 제나 팔라시오스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아이라 글렌 어데어, 줄리 버렛, 호세 차베스,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넬슨, 머리사 엠 스피스
사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넬슨 곤살레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54호, 제57권, 제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20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일: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안덕현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일: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에서

- 최신호 리아호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월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한국어 앱에는 해당되지 않음)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기사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

질문과 피드백이 있다면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r.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ecember 2019 Vol. 43 No. 1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만약 우리 가족이 이런 가족이 아니라면?

우

리는
25년 전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낀다. 선언문은 가족에 관한 영원한 교리를 가르치고,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이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할 원리들을 열거한다.

그러나 가끔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가족 선언문에 잘 들어맞지 않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다.¹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는 연차 대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행복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들이 설사 여러분의 생에서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나 아들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의 계획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²

주

1. 닐 엘 앤더슨, "신앙의 눈",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36쪽.
2. 리처드 지 스코트,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75쪽, 번역 수정.

가족 선언문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야기하는 회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기사를 16쪽부터 만나 볼 수 있다.



상화: 마이클 로저



케빈 헨더슨과 켄드라 헨더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처음에 켄드라는 케빈이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반대했다. 이제 두 사람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두 사람을 모두 복음으로 이끄셨는지 깨닫는다.

레슬리 닐슨, 사진작가

케빈: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가기를 바라시는 그 길을 알려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침례에 대해 생각했을 때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강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성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켄드라:

침례 날짜를 정할 때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선교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 저는 제 딸 아리아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침례 받고 싶니?"

아리아나가 말했죠. "엄마, 엄마만 준비되면 돼요. 저는 준비됐어요."

아리아나의 침례식 때, 아리아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딸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구나'라고 말이죠.

케빈: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가져다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더 알아보기

더 많은 사진을 비롯해 헨더슨 가족의 개종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복음 자료실이나 [ChurchofJesusChrist.org/go/9206](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go/9206) 에서 이 기사의 온라인 버전을 참조한다.

[ChurchofJesusChrist.org/go/9207](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go/9207)에서 디미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로부터 어떻게 영이 우리 모두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는지를 배운다.

성역의 원리

『와서 나를 따르라』를 통한 성역

『와서 나를 따르라』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있든, 주일학교에 교사나 학생으로 참여하고 있든, 아니면 학교나 직장, 또는 다른 어느 곳에 있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결국, 가르친다는 것은 “일요일에 토론을 이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가르친다는 것은 사랑으로 성역을 베풀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 신성한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학생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다

오렐리아 트레호 데 카르테나스는 자신이 다니던 멕시코시티 와드에서 청년 성인들을 가르치는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가까워지면 그들을 더 잘 가르치고 강화할 수 있으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카르테나스는 말한다. “만약 학생들이 저와 친하지 않고 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제가 공과를 하거나 간증을 전할 때 저를 믿지 않을지도 모르죠. 저를 그저 주일학교 교사로만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데 카르테나스 자매는 2주에 한 번만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학생들과 돈독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그녀는 기술에서 방법을 찾았다. 카르테나스 자매와 학생들은 곧 WhatsApp[왓츠앱]이라는 휴대폰 앱을 통해 매일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제 주일학교 공과가 있기 전날이면, 반에서 자원한 한 사람이 그 주의 공과에 나오는 경전 구절을 하나 고르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반원들에게 공유한다. 반원들은 그 경전 구절과 생각을 읽은 다음, 자신의 생각을 답글로 적어 올린다.





“경전 구절을 읽은 학생들은 행복한 표정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반원들이 경전을 읽거나 공부했고,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카르테나스 자매는 말한다. “그 경전 구절을 읽은 학생들이 행복한 표정의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반원들이 경전을 읽거나 공부했고,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일요일 공과 시간이면 학생들은 이미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일상적인 소통은 최근 저활동 회원 부모를 둔 한 청년 성인에게도 축복이 되었다.

카르테나스 자매는 말한다. “그 형제를 교회에서 보면 정말 기쁩니다.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이겨 냈다는 걸 아니까요. 반원들이 보낸 경전 구절과 생각, 그리고 자기 차례에 나누었던 경전 구절과 생각들이 분명히 그 형제를 크게 강화해 주었을 겁니다.”

카르테나스 자매는 경전을 통한 성역이 자신의 일요일 공과나 반원들과 매일 경전 구절을 나누는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제 공과 준비에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요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그들을 생각하죠. 모든 반원은 저마다 구체적이고 독특한 필요 사항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공과를 준비합니다.”

공과를 가르칠 때, 카르테나스 자매는 학생들과 성신 모두에 귀를 기울인다.

그녀는 학생들의 말에서 종종 영의 음성을 듣는다며 이렇게 말한다. “영이 바로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것은 곧 영이 그들에게 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수업은 “마치 가정의 밤 같아요”

칼라 구티에레스 오르테가 코르도바는 카르테나스 자매의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느낀다. 그 반에는 서로를 보살피고 성역을 행하는 분위기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칼라는 그러한 환경이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 덕분이라고 여긴다.

- 준비: 경전 구절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학생들이 다음 공과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칼라는 “매일 읽는 경전은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 우리의 지식을 넓혀 줍니다.”라고 말한다.
- 참여: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의견을 나눕니다. 덕분에 저는 반원들을 친구로서나 형제 자매로서 더 깊이 알 수 있지요.”
- 사랑: “카르테나스 자매님은 우리를 친절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수업은 마치 남매들 여럿이 모여서 하는 가정의 밤 같아요. 정말 특별하죠.”
- 성신: “우리 반에는 즐겁고 조화로운 영이 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죠.”
- 간증: “『와서 나를 따르라』를 통해 저는 간증을 나눌 준비가 될 수 있었어요. 몰몬경과 성경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지식이 생기니까 학교 친구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죠.”

영적인 필요 사항에 맞춰 성역을 행한다

미국 켄터키주에 사는 그레그와 니키 크리스텐슨 부부는 세 아들과 함께 경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성약을 읽게 되었다. 하지만 그 성약의 의미를 아들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부부는 가족들에게 각자 아브라함의 성약을 공부한 다음, 각자 찾은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레그는 이렇게 말한다. “흥미로운 내용이 꽤 나왔습니다. 여덟 살짜리 우리 아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본래 아브람이었다는 것을 알아냈죠. 아브람은 죄로부터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주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그런 사실을 알아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레그의 가족은 모두 새로운 사실을 배웠으며, 아브라함의 성약이 무엇이고 오늘날 후기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훌륭한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아내 니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가족 경전 공부를 할 때 차례로 돌아가면서 경전 구절을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영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더군요. 이제 가족과 경전을 공부할 때면, 우리의 필요에 맞게 토론의 방향을 바꿔 주려 하시는 성신의

인도가 느껴집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크리스텐슨 가족이 가족 복음 공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를 갖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레그와 니키가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 사항에 맞춰 성역을 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니키는 이렇게 말한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자녀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때로 저와 아이들 사이에 생기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제가 영에 더 민감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영의 속삭임에 더욱 귀를 기울이죠. 아이들 각각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영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레그는 『와서 나를 따르라』 덕분에 가족끼리 더 오랜 시간 동안 복음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즐겁다. “우리 아들들은 복음 지식 수준이 각기 다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를 통해 우리는 아이들 각각을 그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도움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복음 지식을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커다란 축복입니다.” ■

주

1. 『와서 나를 따르라—주일학교: 2020 물문경』(2019), 19쪽.

『와서 나를 따르라』를 통한 성역

『와서 나를 따르라』를 활용하여 여러분은 친구나 이웃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성역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1. 여러분이 『와서 나를 따르라』로 무엇을 하고 있으며 경전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2. 경전에서 배운 무언가를 들려준다.
3. 여러분의 성역 대상자들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나 그들만의 공부법을 이야기해 달라고 권한다.
4. 성역 대상자들과 『와서 나를 따르라』를 사용하여 함께 공부한다.
5. 물문경 비디오를 함께 시청한다.
6. 물문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7. 『와서 나를 따르라』 교재를 가져다주거나 복음 자료실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8. 『와서 나를 따르라』에 나오는 미술 작품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 토론한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성역을 배운 경험이나 성역을 받았던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교실 밖에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그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을 어떻게 가장 잘 도울 수 있는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칠 때 성신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

『와서 나를 따르라—주일학교: 2020 물문경』(2019), v쪽.



가족 선언문 안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아보십시오

각 가정의 처한 상황은 저마다 어느 정도 고유한 면이 있지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담긴 영원한 원리들은 우리가 신성한 잠재력에 도달하고자 노력할 때 목표로 두어야 할 이상을 보여 준다. 이 기사는 가족 선언문에 담긴 영감 어린 원리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통찰을 소개한다. 이러한 원리를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영생을 향해 힘껏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1. 우리 각자는 영원한 가족의 일부이며 신성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지상에서 이룬 가족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우리 각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다. 우리는 그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며, 우리의 신성한 목적은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이후의 인용문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인용된 것임.)

우리는 모두 신성한 성품과 운명을 타고났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로마서 8:16~17)

우리는 모두 하늘 부모의 영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가족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의 가정을 구성하는 아들들이요, 딸들이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러한 가족 관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가족”,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15~16쪽.



2. 필멸의 가족은 우리가 영원한 운명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우리가 “완전을 향해 발전하”고 영생을 상속받고자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가족은 창조주께서 ...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다. 어떠한 가족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과 더불어 발전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족을 주셨다

“비록 지상의 가족이 완벽함과 거리가 멀지라도,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느꼈던 사랑을 지상에서 가장 비슷하게 느끼게 해 주는 유일한 곳으로서 부모의 사랑으로 환영받으며 지상으로 오게 되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가장 큰 도덕적 가치와 참된 원리들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하나님 가족의 집합”,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20쪽.

가족은 발전을 촉진한다

“개인의 발전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인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배우는 하나님의 실험실이 되어야 합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 “구원과 승영”,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8쪽.



가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대다수의 교회 회원이 완벽한 가정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있거나 한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가족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족이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간에 우리는 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자 이 지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가 마음속 모든 소망을 성취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분의 손이 우리가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Sister Sharon Eubank, First Counselor in the Relief Society General Presidency, “A Letter to a Single Sister,” Ensign, Oct. 2019, 40, 41; bold added.

더 알아보기

- 한 할머니가 끔찍한 이혼을 겪은 뒤 자녀들과 “영원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배운 교훈을 ChurchofJesusChrist.org/go/92014에서 읽어 본다.



나의 가정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미란다 고배츠, 미국 유타주

우리는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불릴 만한 가족이 아니다. 내가 막 11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헤어지셨고, 그래서 나는 근면하고 헌신적인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다. 성찬식 모임에 가면 우리 가족만 아픈 엄지손가락처럼 빠져 튀어나온 느낌이 들었다.

청소년 시절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대한 공과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한 청소년 지도자가 가족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울컥했고, 단출한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셨으며, 내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 가정 안에서 다 얻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필수 과목인 영원한 가족 수업을 들으려 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수업 시간마다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며 앉아 있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첫 수업을 시작하셨다. “우리는 입으로는 이상을 말하지만 받은 현실에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자면 구주의 속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십 대 시절에 경험했던 것처럼,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가족도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주께서도 지상에서 양아버지 아래 성장하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상적이지 않은” 우리 가족들로도 충분히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감사드린다.

3. “가족”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상을 의미할 수 있다

여러 가족 관계는 성스러운 청지기 직분에 해당될 수 있다. 형제, 자매, 이모, 삼촌, 사촌, 인척 및 다른 사람들도 그들만의 고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런 가족 관계를 발전시켜 두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고 서로 소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휘장 양편에서 가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제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아빠와 엄마, 자녀로 구성된 현대의 가족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용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 즉 친족 또는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은 바로 그러한 가족을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 세대 앞의 조상에게서 힘을 얻는 자녀들과 앞으로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부모들로 구성된 가족 말입니다.”

Elder Bradley D. Foster of the Seventy, “Gathering, Healing, and Sealing Families,” given at the RootsTech Family History Conference in Salt Lake City, Utah, USA, on Feb. 14, 2015.





4. 우리는 영원한 가족을 시작하거나 회복하는 일에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로 가족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웨런 유뱅크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경전에는 대가족의 삶에 심오한 변화를 만들어 낸 의로운 남성과 여성들의 사례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롯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애굽의 요셉은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성인이 되었을 때 서로를 축복하였고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를 축복했습니다. 롯은 며느리로서 나오미를 부양했고 나오미의 권고를 따른 대가로 영원히 축복받았습니다. 사촌지간이었던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임신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심지어 조렘은 니파이와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나 니파이를 충실히 지지하여 본인과 자신의 자녀들까지 친가족처럼 입양되었습니다. 나누어 줄 것이 아주 많지만 자신이 원하는 직계 핵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시각을 더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알아보기

- 가족 역사를 통해 조상들에게 연결됨으로써 신앙을 강화할 수 있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리아호나』, 2018년 9월호, 36~39쪽에 있는 “신앙과 가족 이야기의 힘”에서 읽어 본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안타깝게도, 결혼이 파탄 나거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영원한 가족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는 일들이 때로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한 의식과 성약”을 통해 우리 개개인은 가족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그런 신성한 성약을 맺고 최선을 다해 성약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가족과 영원히 하나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은 채 가족을 이루거나, 회복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께 드리는 제 약속은 언젠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셨던 한 장로님이 제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그분께 저의 대가족 중 몇몇 사람이 한 선택 때문에, 우리가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저 해의 왕국에 합당하도록 생활하세요. 그러면 형제님 가족의 상황은 형제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자신과 가족의 영생을 위해 필멸의 삶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모든 사람에게 이 행복한 희망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행복의 계획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 우리가 각자 영원히 가족에게 인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주님의 영이 거하는 가정”,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25쪽.





우리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이혼의 아픔을 경험했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부디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의 사슬에서 고리 하나가 끊어졌을지라도, 다른 의로운 고리들과 나머지 사슬은 영원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슬을 더 단단히 할 수 있으며, 어쩌면 끊어진 고리가 회복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굳게 매는 연결”(2017년 9월 10일 열린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broadcasts.ChurchofJesusChrist.org

5. 결혼은 신앙과 기도가 필요한 동반자 관계이다.

가족 선언문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일 수 있는 문제이다. 가정에서의 양육, 문화, 교육, 재정 형편, 경험 등은 우리가 관계에 접근하는 방법과 가족을 대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언문에서는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이란 우리가 우리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협의하고 협력할 때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및 기타 원리를 통해 확립된다고 가르친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동반자이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협력자입니다. 부부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보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낳는 것은 온 가족의 축복입니다. 남편이 신권을 받는 것도 온 가족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은 가족 평의회에서 동등한 협력자로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할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지출하고 어디에서 생활할지를 비롯해 가정의 여러 사안을 결정합니다. 이는 주님의 인도를 구한 뒤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목표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룩 장로, “주는 나의 빛”,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64쪽.





우리는 자기 가족만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인도를 구해야만 한다

“우리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설명된 대로 따라야 할 거룩한 패턴이 있으나, 필멸의 삶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의대에 진학하여 환자들에게 훌륭한 영향을 미치고 의학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명문 대학 장학금을 포기하고 이 세대의 추세보다 훨씬 일찍 가정을 꾸려서 자녀에게 훌륭하고도 영원한 영향을 미치도록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충실한 이 두 여성이 동일한 질문에 이처럼 다른 응답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한 여성에게 옳은 일이 다른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선택이나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영감에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President M. Russell Ballard, Acting President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Women of Dedication, Faith, Determination, and Action[“헌신, 신앙, 결심, 행동의 여성들”]”(Brigham Young University Women’s Conference, May 1, 2015), womensconference.byu.edu

더 알아보기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 알아본다.

- 202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진 비 빙엄 자매가 전한 “단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함”을 읽거나 시청한다.

6.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일부이다

우리가 더욱 하늘 부모처럼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자신이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해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일이 때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신앙으로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그분께서 바라시는 모습의 우리가 되는 것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부모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몇 해 전,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제 딸 부부가 삶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저희 부부에게 던졌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악하고 무섭게만 보이는 이 세상에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여전히 안전하고 현명한 일일까요?’ ...

저희 부부는 ‘그렇단다. 괜찮고 말고.’라고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

우리는 분명 위험천만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약의 길 위에 남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시대나 여러분이 가는 길에 닥친 문제로 인해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에게 축복을 남깁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근심하지 말라”,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8, 21쪽.



때로는 신앙으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의 마음에 위로가 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자손을 두는 축복을 받지 못해 슬퍼합니다. … 신앙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받지 못하셨다면 내세에서 받게 되실 겁니다.”

President Brigham Young (1801–77), in Journal of Discourses, 8:208.



난임, 그리고 우리의 와드 가족들

존 맥멀린, 캐나다 앨버타

아내 지니와 나는 언제나 아이들이 많았으면 했다. 정말 언제나 말이다. 그러나 일 년간 노력한 끝에 아이를 생기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의학적으로 난임이었다.

처음에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했다. 매일 밤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평생 준비한 대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사 간구했다. 매달 금식도 했고, 가끔은 더 여러 번을 했다. 임신이 안 되자 매달 점점 더 힘들어졌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쏟을 아이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는 것 같았다. 마치 하나님께서 평생의

원을 청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도 안 된다고 거절하시는 듯했다.

혹 우리가 합당하지 못해서 이러나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당신 영의 자녀들을 더 충실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려는 것이라 믿는 편이 더 쉬웠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괴로웠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두 가지에 힘입어서 계속 교회에 나갔다. 첫째, 우리는 성전에서 인봉될 때 주님과 서로에게 성약을 맺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었고, 그래서 현재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둘째는 우리의 와드 가족들 덕분이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난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 것은 축복이었다. 지니의 자매 성역자도 난임을 경험한 사람이라 지니는 교회 안에서 자녀 없이 사는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괴롭긴 했지만, 우리는 교회에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신다

여전히 우리는 응답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과 더불어 노력해 보았으나 우리는 아직 자녀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맺은 성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고 지지해 주는 워드 가족들 덕분에 우리는 인내와 신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히브리서 12:12~13 참조)

우리는 부모가 될 날을 고대한다. 그리고 그 행복한 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이 교회에 속해 있을 것이다.

선언문에서 주님의 사도들은 “생명이 존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생명은 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명을 주셨다.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존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사회에 좋은 나쁜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성적인 애정행위에는 성스러운 목적이 있다

“육체적인 애정 행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징적인 결합, 즉 영혼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신성의 일부를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지는 그 신성의 한 가지 면은 ... 눈과 귀,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장엄한 미래를 가진 자녀를 ... 창조하는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여러분과 저는 그 신성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가장 중대하고 거룩한 제한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은 자기 통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통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권세를 존중할 때 가능해지는 통제를 의미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7쪽.

더 알아보기

- 가족을 갖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2019년 6월호 『리아호나』 청년 성인 섹션을 읽는다.
- (재정적 및 사회적 지원에 관한 자료를 포함해서) 성경에서 난임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평안을 얻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ChurchofJesusChrist.org/go/92020에서 읽어 본다.

성적인 애정행위를 적절히 이행하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성관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닌 신성한 본성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적절한 성적 표현을 통해 지상과 영원에 걸쳐 펼쳐지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자들에게 영원한 결혼과



자손 그리고 영원한 가족과 관련된 다른 모든 축복을 포함하여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일 지 렌랜드 장로와 루스 리버트 렌랜드 자매, “성적인 애정행위가 지닌 거룩한 목적”, 『리아호나』, 2020년 8월호, 12~17쪽.

더 알아보기

- 2020년 8월호 『리아호나』에서 성의 신성한 목적과 적절한 발전, 자녀에게 가르치는 방법 등 성에 관한 하나님의 시각을 자세히 알아본다.

8. 부모로서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우리 중 많은 이에게 부모가 될 기회와 책임을 주셨다. 우리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 안에서 양육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지지해 주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결혼 생활과 가정생활에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임무는 가정 안에서 맡은 임무입니다. 그 임무가 중요한 이유는 자녀가 인생을 시작할 때 본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굳건하게 내딛게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23쪽.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과 의로움 안에서 양육되기를 바라신다 “자녀가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도록 강화하는 것은 부모와 조부모, 가족, 교사, 지도자의 일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을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

가족마다, 아이마다 서로 다르기에, 어떻게 하면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한 가지로 답하기에 매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범세계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영은 우리가 자녀에게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반드시 이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성한 정체성과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이 누구이며 왜 이곳에 왔는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스스로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로 인식하도록 돕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성한 기대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

죄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은] 우리를 구주께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교리와 원리를 경전, 신앙개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 초등학교 노래, 찬송가,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이 디 존스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세대”,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88쪽.

가족은 우리의 지지가 필요하다

“참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족 내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회장,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2쪽, 강조체 추가.

더 알아보기

-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경전 및 학습”을 선택하여 “복음 주제” 항목에 있는 “자녀 양육” 부분에서 부모의 본분에 관한 내용을 더 찾아본다.



9.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가족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옹호할 수 있다

창세 전부터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가족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널리 알리고, 내부의 붕괴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 이유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결혼과 가족을 옹호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특히 가장 높은 영광인 승영, 즉 영생에 이르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높은 영광은 영원한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에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내재하는 창조의 능력이 포함되는데, 현대의 계시에서는 이를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 계속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청년 성인들에게 전한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인 승영을 향해 진보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어 승영의 삶을 살고 우리 하늘 부모의 신성한

잠재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바라는 운명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두 가지 큰 계명”, 『리아호나』, 2019년 11월호, 74쪽.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고도 가족에 대해 옹호할 수 있다

“믿는 자들이 공개 토론회에서 입장을 피력하려 할 때,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견해와 입장에 대해 항상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늘 사랑을 지니고 말하며 대립하는 입장에 대해 인내심과

이해심과 동정심을 보여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누가복음 10:27 참조), 용서하며(마태복음 18:21~35 참조), ‘[그들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그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라는 구주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진리와 관용 사이에 균형 맞추기”, 『리아호나』, 2013년 2월호, 34~35쪽.

더 알아보기

- 이번호 온라인 기사인 “우리는 의회 앞에 섰다”에서 가족에 대해 옹호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읽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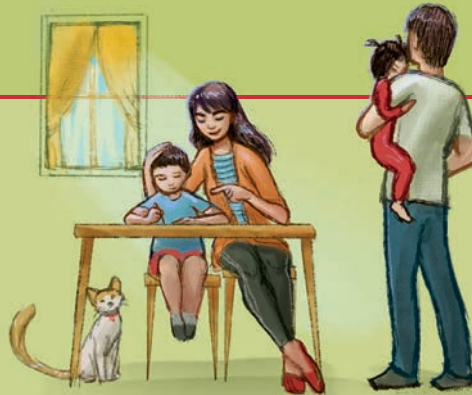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중요한 존재임을 자녀와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25년 전 이달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함께 이야기해 볼 **5** 가지 진리



- 우리 각자는 “하늘 부모의” 자녀이다. 이 진리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만약 모든 남성과 여성, 소녀와 소년이 서로를 똑같이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로서 존중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더 나은 곳이 되겠는가?
- 여성과 남성은 모두 “신성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는 소년과 소녀 모두에게 언젠가 완전한 하늘 본향에서 살 기회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신성한 운명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좋은 선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가?
-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을 돕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두 사람은 “동등한 동반자”로서 함께 일해야 한다. 여러분은 남성과 여성이 중요한 일에 단합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언제 보았는가?
- 부모는 “사랑과 의로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머니, 할머니 또는 다른 여성에게서 어떤 좋은 것들을 배웠는가?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다른 남성에게서는 어떤 좋은 것들을 배웠는가?



4 가지 활동 아이디어

- 무언가를 하기 위해 함께 쓰이는 도구를 찾아본다. 예를 들어, 손가락과 젓가락은 아주 다르지만, 둘 다 식사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도 서로 다르지만 모두 중요한 존재이며, 함께 일할 때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 이번 호 『친구들』에서 교회를 이끄는 남성과 여성들 그림을 찾아 색칠한다.
- 여러분의 가족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더 큰 존중심과 친절을 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떠올려 본다. 그들이 자신이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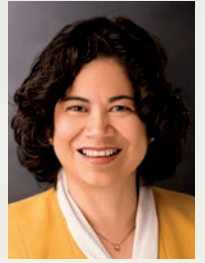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추가 자료

- “빛나는 아이디어”(2020년 9월호 『친구들』)
-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2020년 9월호 『친구들』)
- “나의 연차 대회 학습 노트”(2020년 9월호 『친구들』)
- “교회를 이끄는 여성들”(2020년 9월호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사업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성전 의식을 통한 치유의 기적

현 재 혹은 과거에 자신이 처한 장소와 시대,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 중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장 양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 일이 가능해지도록 도우라는 부름을 받아 왔습니다.

구주의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은 성전의 구원 의식을 통해 거듭나고, 의로운 상태로 변화되며, 하나님께 구속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모사이야서 27:25~26 참조)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모든 공과,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단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하기 위해 쏟는 모든 노력은 거룩한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성전 의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그 의식들 없이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¹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주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누가복음 5:31~32)

제일회장단 제2보좌였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병 고침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성전 사업을 지상에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구원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세상의 많은 근심을 잊을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성전은 평화와 평온의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처에서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편 147:3) 주십니다.”

많은 곳을 방문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성전으로 와서 조상을 위해 구원의 의식을 행하려고 저녁까지 온종일을 그곳에서 보내는 충실한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른 아침 등교하기 전에 성전에 참석해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으며 그런 성스러운 의식을 다른 측면에서 돕는 헌신적인 청소년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청남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 매주 하루씩 방과후에 대중교통으로 성전에 와서 조상들에게 영적으로 거듭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의로운 상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한 구원 의식을 받기 위해 몇 시간이나 배를 타고 성전으로 오는 가족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랑하는 조상들의 이름을



나의 할머니 이사벨 블랑코

“성전은 평화와 평온의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처에서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찾고 그 이름을 성전으로 가져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하나님께 구속받을 기회를 준다는 회회 개개인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열한 살 난 소년 소녀들이 열의를 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자기 조상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기회를 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침례반의 물이 너무 깊어서 침례반으로 내려가는 맨 끝 계단에 올라서야만 하는데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영적인 치유를 받고 휘장 저편에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성전에 옵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는 모두 구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 조상 두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받은 치유

제 할머니인 이사벨 블랑코는 니카라과 포토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사랑이 많고 근면하며 충실한 여성으로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제가 자라는 동안

제 어린 마음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드리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일요일마다 저를 데리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젊어서는 부유한 가정에서 하녀 일을 하셨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비극이지만, 할머니는 주인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사실을 터는 숨길 수 없게 되자 해고되었습니다.

그 임신으로 제 아버지인 노엘이 태어나셨습니다. 포토시는 자그마한 동네여서 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의 친부가 누구인지를 알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 아버지와 직접 접촉하거나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벨 할머니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으셨으나 두 명의 혼외 자식을 더 두셨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 세 자녀를 데리고 더 나은 고용 기회와 교육 기회를 찾아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로 이사하셨습니다.



나의 부모님, 노엘과 델비 블랑코

우리는 모두 영적인 치유를 받고 휘장 저편에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성전에 옵니다.

제 아버지는 십 대 후반부터 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제 어머니 델비를 만나 결혼을 하셨고, 두 분은 네 자녀를 두셨습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의 결혼 생활은 당신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고, 부모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뒤 50대의 나이에 별거를 시작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몇 년 후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아버지를 위해 인봉 의식을 제외한 모든 성전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부모님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당시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인봉되고 싶으신지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꿈을 하나 꾸셨는데, 꿈속에서 남편이 마나과에 있는 집 부엌문 밖에서 손을 내밀며 같이 가자고 청하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음에 따뜻한 느낌을 품은 채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네 아버지에게 인봉되려고 해. 참석하고 싶으면 오렴.”

저는 몹시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가고 싶고 말고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저 역시 그분들에게 인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토요일 아침, 어머니는 제 남편과 함께 성스러운 성전 계단에 무릎을 꿇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인봉 의식을 받으셨습니다. 그 의식으로 저는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몇 년 전에 사망한 제 오빠의 대리인으로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 거룩한 순간, 모든 아픔과 슬픔이 잊혔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속죄를 통해 휘장 양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과 치유의 향유를 느꼈습니다.

몇 년 후에 저는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우리 집회소에 있는 것과 같은 연단에 아버지가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하고, 영감에 찬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꿈에서도 저는 아버지가 숙련된 교회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아버지가 어쩌면 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신 게



구주의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은 성전의
구원 의식을 통해
거듭나게 됩니다.

아닌가 하는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시점엔가 우리는 할머니 이사벨을 위해서도 성전 의식을 행했는데, 할머니는 생전에 결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인봉은 제외했습니다. 이사벨처럼 남자들에게 정중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전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여성도 휘장 저편에서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성전에서 대리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

역시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증진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치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돌아해보면, 비록 아버지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독으로 해를 입었지만,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의 그런 약점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때면, 아버지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셨고, 한 번도 화를 내신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역시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성전의 구원 의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제 아버지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모든 성전에서 개인과 가족이 경험하는 영원한 치유의 축복에 관한 두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휘장 양편에 있는 모든 자녀가 구주께 나아가, 거룩한 성전의 축복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느끼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권유합니다.”³

할머니와 아버지가 영원한 은사를 받는 데 필요했던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불러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을 돕게 하시는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가능하게 하신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는 휘장 양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알기 원한다면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휘장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필수적인 침례와 성전 의식들을 받도록 돕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언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합니다.”⁴

저는 성전 의식을 행해 드렸던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조상들이 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품고, 신앙을 행사하며,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며, “끝없는 행복의 상태에서”(몰몬서 7:7) 조상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 저편으로 갔을 때, 그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분들에게 그것을 꼭 가르치겠습니다! 그분들을 껴안고, 제가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는 한 번도 나눈 적 없는 흥금을 터놓는 대화를 나누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분들께 간증하고 싶습니다.⁵

치유하는 권능

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고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자”로 부름받지도 않았으며, 설교나 꾸밈음을 주도록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들어 올리며, 권유하고,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치유받을 기회를 얻도록 사람들을 낚는 자, 곧 영혼을 낚는 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성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친히 인용하셨던 부분입니다.(누가복음 4:18~19 참조)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이사야 61:1~4)

테일 지 렌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이 상처를

치유할 권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족이 비극과 상실, 고난을 겪더라도 무한한 능력으로 그들을 인봉하고 치유해 주십니다.”⁶

넬슨 회장은 “치유의 진정한 권능은 … 하나님에게서 온 은사”⁷ 라고 가르치셨으며, 또한 “부활은 주님의 치유를 완결 짓는 행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각 육신은 온전하고 완전한 형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분 덕분에 어떠한 상황도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 덕분에 현세와 내세에서 더 밝은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슬픔 저편에서 우리 개개인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⁸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각자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음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상심한 자에게 치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 전파하기 위해” (누가복음 4:18) 지상에 오셨으며, 그래서 우리 각자는 “거룩하며 흠 없게”(모로나에서 10:33) 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

주

1. 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10월호, 41쪽, 번역 수정.
2. 제임스 이 파우스트, “영적인 병 고침”,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7쪽.
3.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18~119쪽.
4. 러셀 엠 넬슨 회장,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5. 몰몬경 표제지.
6. 테일 지 렌런드,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 인봉과 치유”,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46, 48쪽.
7. Russell M. Nelson, in Sheri Dew, Insights from a Prophet's Life: Russell M. Nelson (2019), 150.
8.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7~88쪽.
9. 이사야 42:16, 51:10 니파이전서 3:7; 9:6; 17:41; 22:20; 니파이후서 8:10; 9:10; 이더서 12:8; 교리와 성약 132:50 참조.



영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이마르 카리나 로마이 데 로하스, 에라도르 과야스주

청녀 공과를 준비하면서 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나는 돌아오는 일요일에 가르칠 청녀 공과책을 펴서 훑어보았다. 거기에 있는 총관리 역원의 인용문은 중요하고 적용할 만한 것이었지만, 오래된 말씀이었다.

예를 들어,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내가 침례받을 당시의 교회 회장님이시다. 공과 교재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훌륭했지만, 청녀들이 과연 전혀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나는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라는 영감을 받았다. 나는 몇 가지 이야기를 새롭게 고치고,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님이 최근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인용문을 추가했다. 결과는 대단했다. 청녀들의 열띤 참여 속에서 특별한 공과가 진행되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공과 교재를 공과를 준비하기 위한 안내서로서만 활용했다.

그런 준비는 사실 노력이 더 많이 든다. 더 많이 공부하고, 청녀를 더 잘 알아야 했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했다. 그런 다음에는 청녀들의 삶과 연관성이 있는 현 지도자들의 말씀과 모범을 찾아보았다. 나는 청녀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는 게 기뻐했다.

내가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이런 방식은 나중에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알려졌다. 교재를 따르지 않는다 해서 질책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었지만, 지도자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라며 나를 격려해 주었다.

2012년이 몇 주 안 남은 시점에,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스테이크 내의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새로운 교과 과정을 소개하는 훈련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셨다.

그런데 훈련 모임에서 들은 내용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고,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에서 공과를 위한 영감을 구하며,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 알아 가야 한다고 설명하셨다. 나는 이미 그러한 것에 대한 간증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의 공과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했지만, 나는 이 새로운 접근법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마치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주님의 응답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 새로운 과정을 가르치게끔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성신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발표하는 모든 변화를 무난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

부치지 않고도 응답된 편지

엘리자베스 앨런, 미국 유타주

경전 가방 안에서 발견한 편지를 열어 보았다. 그 편지를 부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나의 훌륭한 부모님은 오빠들 넷에 외동딸인 나까지 거의 티올 없이 연달아 낳아 기르셨다. 우리는 서로 나이도 비슷했지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였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 주었고, 함께 시간을 보낸 소중한 추억도 많다. 서로에게 언제나 좋은 친구였다!

그렇기에, 오빠 중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내가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 고통을 견뎌 내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될 정도였는데, 사실 고통이라는 단어도 내 마음을 다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그 끔찍한 경험을 표현할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경험은 세상을 뒤바꾸어 놓는다.

오빠와 그 죽음에 대해 영혼을 짓누르는 듯한 의문에 부딪히는 가운데, 나는 주님의 도움에 의지하여 가족을 보살피고 내가 해야 할 다른 의무들을 해 나갔다.

주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내가 느끼는 의문을 선지자에게 편지로 적어 보내라는 영감이 왔다. 내가 느끼는 의문들이 너무도 크고 깊어 오직 선지자만이 대답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긴 했다. 망설임을 느끼던 중

예전에 영적인 속삭임을 따른 후 좋은 일이 일어났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나는 러셀 엠 넬슨 회장님 앞으로 눈물 젖은 편지를 써 내려갔다.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의문들이 풀리기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적었다. 편지를 다 쓴 후, 나는 넬슨 회장님의 주소가 적힌 봉투에 편지를 봉한 후 경전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그 편지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경전 가방 안에서 편지를 발견했고, 그것을 열어 보았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나는 신앙을 통해, 그리고 내가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전 의식에 참석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성신의 도움으로 거기 적어 두었던 의문점 하나하나에 대한 응답을 받았음을 깨달았다! 나는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가까이 느꼈다.

그 편지를 부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 대신, 나는 주님께서 나를 포함한 당신의 모든

자녀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중요한 경험을 한 것이다.

한때는 내가 가진 의문들이 너무도 복잡해서 선지자만이 그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는 구주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요한복음 14:18) ■



삽화: 데이비드 그린

오빠의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마카레나 몰리나, 칠레 비냐델마르

오빠에게 사고가 난 후,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심을 알게 되었다.

우리 오빠 예르코는 19세 때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였다. 다행히 사고 2주 전에 응급 처치법을 배운 오빠의 친구가 필요한 처치를 해 주었고, 그 덕에 오빠는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고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숨이 붙어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 병원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한 명뿐이지만, 오빠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특별학회 때문에 신경과 전문의들이 그 병원에 모여 있었다. 그들 모두가 즉각 오빠의 치료에 투입되었다.

예르코 오빠는 여섯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중 석 달을 혼수상태로 지냈다. 오빠가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는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오빠의 곁을 지켰다. 와드 회원들과 스테이크 회원들은 오빠를 위해 기도과 금식을 하고, 신권 축복을 주었다. 우리의 기도는 2011년 1월 1일에 오빠가 깨어남으로써 응답되었다.

예르코 오빠가 병원에서 회복되는 동안, 회원들은 계속 병문안을 와서 오빠를 보살피는 우리를 거들어 주었다. 모두들 이 힘든 시기에 우리를 위해 성역을 베푸는 천사 같았다.

예르코 오빠는 지금까지도 단기 기억 상실 등 후유증이 좀 남아 있다. 하지만 오빠는 걸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진은 이런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한다.

예르코 오빠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 나는 청년이었다. 나는 매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라는 청년 주제를 암송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오빠의 사고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전은 그 사랑의 표시이다. 예르코

오빠와 나는 우리 부모님께 인봉되었기 때문에, 혹시 오빠를 잃게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나와 가족들에게 크나큰 위안이 되었다.

사고 직후, 의료진이 예르코 오빠가 이제 몇 시간밖에는 더 못 살 거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빠를 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예르코 오빠가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자, 나는 선교 사업을 나가 우리가 경험한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오빠가 회복된 이야기는 내가 페루에서 선교 사업을 하며 가르쳤던 많은 이에게 축복이 되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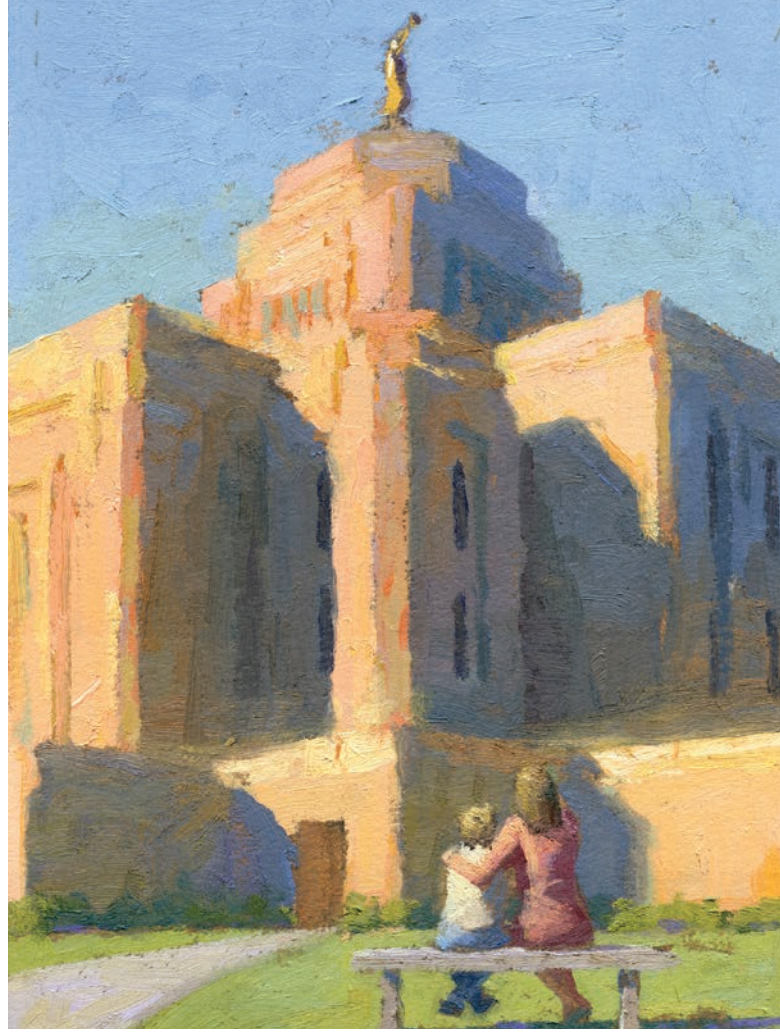
우리는 종종 힘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의문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한다면 결국은 만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로마서 8:28 참조) ■



우리 아들과 물몬경과 나

앤 맥슨, 미국 아이다호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고 가르침을 주셨던 구주께서는 우리 역시 자녀를 한 명 한 명 가르치도록 도와주신다.



언젠가 테드 알 콜리스터 형제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그분은 당시 본부 주일학교 회장이셨다. 내용을 필기하면서, 나는 아들 존과 관계를 회복할 방법에 대한 영감을 느꼈다. 6개월 후에 있을 존의 침례 전에 우리가 함께 물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느낌이었다.

그 느낌이 얼마나 분명한지, 어느 방에서 언제 읽어야 할지도 알 수 있었다. 물몬경 읽기를 마칠 장소는 아이다호 머리디언 성전 정원이어야 한다는 느낌도 분명하게 들었다.

매일 밤 둘이 시간을 내어 물몬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더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 서로에게 더 인내하고, 서로의 관점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정기적으로 성신의 임재하심도 느꼈다.

물몬경 읽기를 마치고 전날 밤, 우리는 모로나이의 약속을 읽었다.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물몬경이 참된지를 간구한다면 성신의 권능으로 그 참됨을 알게 되리라는 약속 말이다.(모로나이서 10:4~5 참조) 우리는 물몬경이 참되며,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확신을 느꼈다.

이튿날, 우리는 성전 뜰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우리는 모로나이

천사의 동상을 올려다보고 그의 마지막 간증을 다시 한 번 읽었다. 그날 이후로 존은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물몬경을 읽었던 그 일을 여러 번 이야기했다. 이제 나는 성전에 갈 때마다 그 벤치를 보며, 영감으로 주어진 우리의 목표를 성취했던 그 특별한 순간을 되새긴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부모는 주님께 나아오라는 그분의 권유를 자신과 [각] 자녀가 더욱 온전하게 받아들일도록 인도할 기회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¹

나는 “[각] 자녀”라는 표현에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고 가르침을 주셨던 구주께서는 우리 역시 자녀를 한 명 한 명 가르치도록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존과 함께 물몬경을 읽으라는 영적인 지시를 주신 것을 보며, 나는 그분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의 권고를 귀 기울여 듣고 따르면, 그분께서는 내가 자녀를 한 명 한 명 그분께 다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 주시리라는 것을 안다. ■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주님의 영이 거하는 가정,”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23쪽.



히라만서 13~16장

8월 31일~9월 6일

어떻게 선지자를 지지할 수 있는가?

레 이맨인 사무엘은 니파이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선지자였다. 많은 이가 그를 거부했으나, 몇몇은 그의 영감 받은 가르침을 듣고 믿었다. 연차 대회에서, 그리고 그 밖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 시대의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말씀을 듣고 그를 지지할 기회가 있다.

레이맨인 사무엘에 대해 읽으면서,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현재의 선지자를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우리 시대를 위한 지침

사무엘은 당시 니파이인들이 사악해지자,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했으며 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히라만서 14:11~12 참조) 사무엘은 또 어떤 원리들을 가르쳤는가? 넬슨 회장은 우리 시대에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

중요한 것은 인기가 아니다

니파이인 대부분은 사무엘의 가르침에 분노하여 돌과 화살로 그를 공격했다. 사무엘은 그들이 죄는 어떠한 결과도 낳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만 따르려 한다고 지적했다.(히라만서 13:25~27 참조)

오늘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들이 인기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¹ 니파이인들이 선지자에게 “돌”과 “화살”을 던진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귀 기울여 들겠는가?

비록 많은 사람이 사무엘을 거절했지만, 일부는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그런 뒤 그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겼다. 여러분은 후기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주

1.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 2019년 9월 17일], <https://news-kr.churchofjesuschrist.org/article/president-nelson-byu-transcript-september-2019-kor>



제3니파이 1~7장

9월 7일~13일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경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어둠이 없는 밤과 낮을 본 니파이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레이맨인 사무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에 놀라워했다.(제3니파이 1:15~21 참조)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은 들은 바 표적과 기사를 잊기 시작하며”(제3니파이 2:1) 악으로 돌아섰다.

니파이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었을까?

니파이인들이 목격한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린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제3니파이 1장 22절과 제3니파이 2장 1~3절 및 10절을 읽고 이 백성들이 주님을 잊게 된 방식을 열거해 본다.

오늘날 사탄은 어떻게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 드는가?



토론

인생에서 겪은 “잊지 못할” 영적인 경험을 망각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 보았는가? 생각한 것을 일지에 적어 본다. 그것을 가족과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영을 느꼈던 때와 간증이 강했던 때를 떠올려 보며 자신이 쌓았던 영적 토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다면, ... 간증이 차고 넘쳤던 그 소중한 시절이 겸손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다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는 안전과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을 장담합니다.”¹

과거에 했던 영적인 경험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

1.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잊어버리지 말라”,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14쪽.



제3니파이 8~11장

9월 14일~20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부 활하신 구주께서 니파이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푸시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라고 소개하시는 음성을 들었다.(제3니파이 11:7)

니파이인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삶에서 성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토론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기를 열망한 니파이인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소개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에서 영적인 인도를 구하는 데 더 잘 집중할 수 있을까?

성전에 간다

니파이인들은 풍요 땅에 있는 성전 주위에 함께 모였다.(제3니파이 11:1 참조) 그런 신성한 장소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 성전에 참석하고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권능을 느낀다

처음에 니파이인들은 “작은 음성”을 들었으나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였”다.(제3니파이 11:3) 이 음성은 참으로 “듣는 이들의 중심까지 꿰뚫”었다.(제3니파이 11:3)

영의 “세미한 소리”가 가진 권능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열왕기상 19:11~12 참조)



귀를 연다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들은 후, 니파이인들은 “이를 듣고자 그들의 귀를 [열]”었다.(제3니파이 11:5) 그들은 마음을 겸손히 하고 기꺼이 듣고자 했다.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근원을 향해 돌이킨다

니파이인들은 귀를 연 후에 “소리가 나는 하늘을 향하여 ... 주목하였”으며 “그 듣는 음성을 깨달았”다.(제3니파이 11:5~6)





제3니파이 12~16장

9월 21일~27일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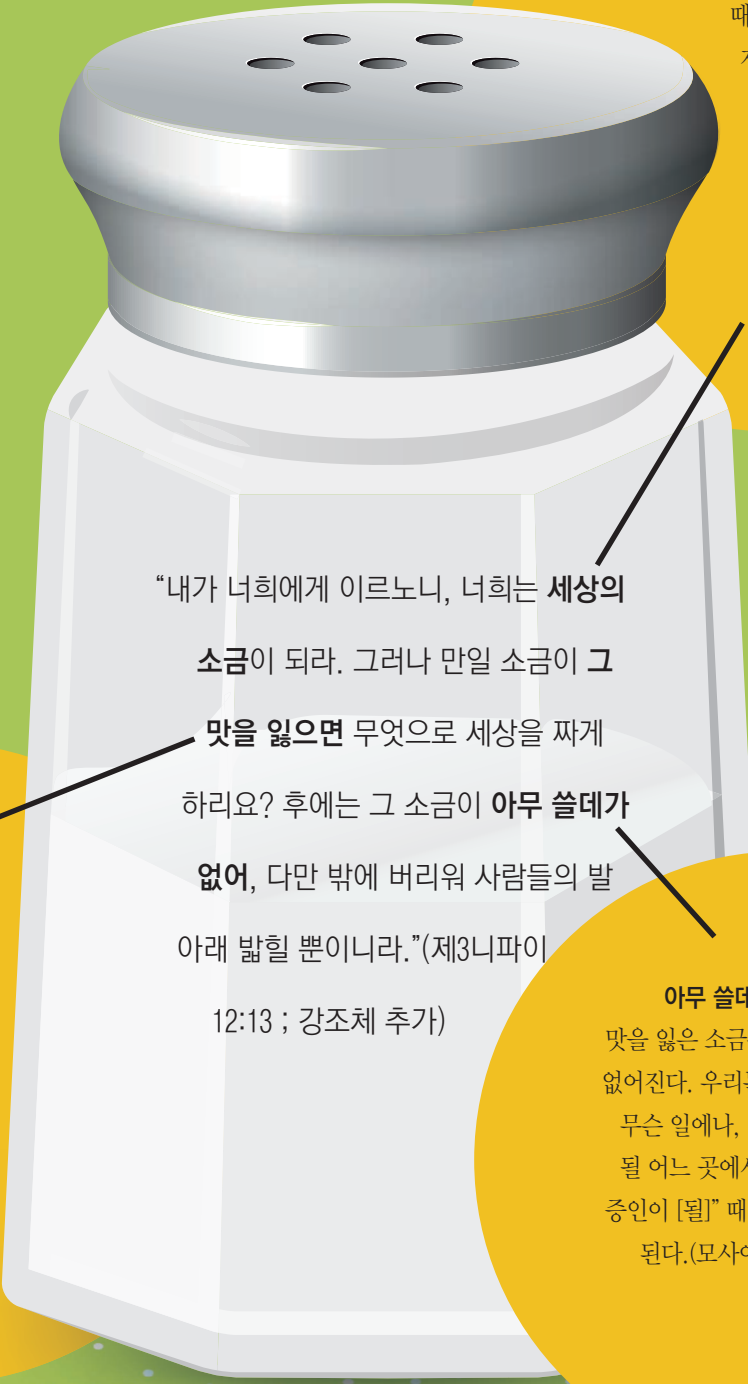
세상의 소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겠다고 약속한다.(교리와 성약 34:5~7 참조)



세 율법하에서는 소제물로 사용될 고기에 미리 소금을 쳐 놓아야 했다.(레위기 2:13 참조) 소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고기에 소금을 치듯이,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제3니파이 12:13) 주님을 위해 세상을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또한 ‘세상의 빛’이며, 우리의 빛은 감추어져서는 안 됩니다.”(마태복음 5:13~16 참조)
말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회개와 변화”,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40쪽, 번역 수정.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그 소금이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힐 뿐이니라.”(제3니파이 12:13 ; 강조체 추가)

그 맛을 잃으면:

우리는 “세상을 위한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도와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03:9~10)

아무 쓸데가 없어: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우리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될] 때 세상의 소금이 된다.(모사이야서 18:9)

토론

나는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어떻게 더 잘 준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위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8개의 새로운 성전이 발표되다

-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
- 미국 플로리다 텔러해시
- 콩고민주공화국 루분바시
- 미국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 나이지리아 베닌시티
- 미국 유타 시러큐스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

“우리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숨거나 도망치기 위해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이기기 위해 성전에 갑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집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게 하여”, 86쪽; 강조체 추가.

우리는 어떻게 “그의 말을 [듣]”는가?

여러분은 25개 이상의 말씀이 전달되는 전 세계적인 대회를 어떤 말로 요약하겠는가? 마지막 말씀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 대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한마디로 요약[했다.] …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참으로** 구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며,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114쪽)

계시를 불러들이고 인식하기 위해 계속 힘써 노력하면서, 넬슨 회장의 말씀과 다음 연사들의 말씀을 시청하거나 읽어 본다.

-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과도 비할 데 없는 구주의 속죄가 주는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신앙, 순종, 겸손, 그리고 진정한 의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 줍니다.”(“잊지 못할 영적인 기억”, 21쪽)
- 쿠엔틴 엘 쿡 장로는 “개인적인 계시는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우리가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세 가지 원리를 전했다.(“선지자에게 오는 지속적인 계시와 우리 삶을 인도하는 개인적인 계시의 축복” 참조, 98~99쪽)
- 리카르도 피 히메네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가르치고 명하시는 일들을 **믿는**가입니다.”(“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피난처를 찾음”, 102쪽)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

로렌 소퀴 보만

오만에 사는 남편과 나는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연차 대회의 오전 모임을 시청하기 위해 서둘러 아이들을 재웠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선지자와 제자들을 통해 인도와 평안을 주실 것을 알았고, 그것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대회 날까지 날짜를 세며 기다려 온 터였다.

조이 디 존스 자매님은 주님께서는 노력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고자 하는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역사상 결정적인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물으셨고,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님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우리가 가진 빛을 의도적으로 발할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셨다.

나는 주님께서 급속도로 진전시키고 계신 이 선한 사업에 내가 얼마나 간절히 동참하고 싶어 하는지를 느꼈다. 연차 대회를 통해 나는 내 아이들의 개인적인 발전을 돕는 노력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사려 깊고 영적으로 진실한 친구가 되며, 데이터 입력과 같은 가족 역사 임무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새롭고도 창의적인 기회를 찾으라는 영감을 받았다.

여기에 나오는 쪽수는 모두 2020년 5월호 『리아호나』에 해당하며, 해당 호는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도록 의도적으로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저하는 발걸음일지라도, 우리는 구주를 향해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의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보니 에이치 코든, 본부 청년 회장, “그들로 보고”, 80쪽.

생각해 봅시다 ...

여성과 남성의 은사

우리는 문화적 편견이나 “나 먼저”를 외치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 비영 자매는 남성과 여성이 반드시 서로 단합하여 일하는 신성한 패턴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여성은 독특하고 신성한 은사를 지녔으며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성이 받은 은사와 책임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각 자녀에게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할 최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따라서 이것들이 모두 필요합니다.”(“단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함”, 63쪽)

우리는 구원 사업에서 서로를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서 소중히 여길 준비가 되었는가?

이번 호 이야기

44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3단계 지침
마이클 가드너

온라인 전용

곁에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울증과 맞설 수 있었다
에밀리아 브랜드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위해

나는 계속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은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은 이렇게 도울 수 있다
산텔 에이버리

마침내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내가 어둠 밖으로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셨다
니파이 탕갈린

아래에서 이 기사들과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여러분의 고통을 구주께서 아십니다

우 리 대부분은 지상의 여정 중 어느 시점에는 스트레스로 기력이 완전히 바닥되거나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슬픔의 먹구름, 또는 (제 경우처럼) 우울의 안개에 휩싸여 무감각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푸른 언덕과 햇빛을 향해 가는 여로에서 **이런 감정을 경험하며**, 그 때문에 쉽게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닥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봉사하며 타인들에게 너무도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아이를 갖게 된 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여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서 그 사람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때, 심지어는 다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도 자기 자신은 괜찮지 않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의 변치 않는 사랑을 통해 오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조차도 **우리 구주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으며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십니다.

손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모사야서 18:21 참조) 이번 호에서는 다른 이들, 특히 구주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정신 건강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주제로**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직 힘겹지만 계속 나아가고 있는,

에밀리아 브랜드 드림

편집자 주: 정신 건강은 정신 질환과 다르다. 정신 건강은 정서적, 심리적 상태의 건강과 안정을 말한다. 반면, 정신 질환은 기분, 사고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장애를 말하며, 유전학이나 뇌 화학 같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대나 기타 외상성 사건에서 유발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안들은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 질환은 건강 전문가가 다루고 치료해야 한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싶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3 단계 지침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감은 언젠가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마이클 가드너 박사
가족 서비스

30

년간 정신 건강 상담사로 일해 온 나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자주 놀라움을 느끼곤 한다. 우리는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감은 특히 청년 성인 시절처럼 매우 불확실한 시기에 종종

우리 삶으로 스며들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은 때로 내면에 혼란을 야기하며, 문제에 대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능력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나는 시간을 내어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면, 어려움에 맞서는 힘과 회복 탄력성이 더욱 향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신 능력을 강화하여 장애물을 더 잘 헤쳐 나가기 위해 (그리고 좋은 시기도 잘 보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 이 기사에서는 그중 세 가지 영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신 및 정서적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 세 영역에 집중해 보자.



작고 단순한 영적인 일들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영적인 일들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된다.(엘마서 37:6~7 참조) 영적인 습관을 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습관은 정신을 맑게 해 주고 힘과 영원한 관점, 희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준다.

나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한다. “매일 할 일을 하세요.” 여기에는 매일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리고 경전을 공부하며, 교회 부름이나 책임에서 봉사하고, 매주 교회에 참석하고, 자주 성전에 가고,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려 노력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나는 이런 작고 단순한 영적인 습관들이 어려움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능력을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다. 이 작은 습관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결심할 때, 내담자들은 구주의 권능이 미치는 영향력을 삶 속에서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나는 그 권능을 통해 그들의 영적 및 정신적 힘이 커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힘은 또한 행복을 찾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작고 단순한 일로 큰일이 이루어지는 영적 패턴은 우리를 단단하고 굳건하게 하고 헌신의 깊이를 더해 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더욱 온전히 개심하게 합니다.”¹

여러분이 진정한 의도로(모로나이서 10:4 참조) 이런 작은 영적인 일들을 행할 때, 불확실함이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한다. 만일 이런 영적인 습관들이 힘과 치유, 그리고 평안과 희망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면, 혹은 믿고자 소망한다면(엘마서 32:27 참조),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자신을 보살피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인식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

실제로 자신을 보살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모두 자립이라는 복음 원리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대개 우리는 자립을 재정적 혹은 현세적인 필요 사항과 연관시켜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서적인 자립, 즉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남을 위한 시간은 잘 내면서, 왜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어려워할까? 때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시간 낭비라고 여겨지는 듯하다. 하지만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 자신을 보살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자신을 보살피는 데 실패한다면, 남들과 나눌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 있겠는가?

자신을 보살피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인식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 사항을 발견하는 데 중요하다. 다음은 자신을 보살피는 몇 가지 방법이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정신 및 정서적인 필요 사항을 일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보살핀다.
-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걱정이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쌓는다.
- 기쁨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좋은 오락거리와 취미, 활동을 찾아본다.
-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지를 적는다.
- 야외에서 시간을 보낸다.
- 건강한 한계치를 설정해 두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거절한다.
- 감사하는 법을 연습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매일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한 것을 세 가지씩 적어 본다.
- 부정적인 생각, 자기 자신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꾼다.
- 명상한다.
-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한다.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의 거룩한 자녀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
- 소셜 미디어에 들이는 시간을 줄인다.(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다.)
-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 계속해서 원한이나 과거의 실수에 매달린다면 여러분의 어깨에는 불필요한 부담만 더해질 뿐이다.

3

스스로 겸손해지고 도움을 구한다

이 필멸의 여정을 홀로 헤쳐 나가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 자립했을지라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정신 및 정서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여정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도와줄 부모님과 다른 가족 구성원, 친구, 교회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이 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점검해 본다. 이렇게 자문해 본다.

- 나는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나는 사람들을 밀어내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를 도우려면 먼저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의 불안증에 대해 털어놓는 것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말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분명 용기와 겸손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을 삶에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허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들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신다.

진정한 정서적 자립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때 시작된다. 친구나 가족 외에 교회 지도자들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조언과 인도, 희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정신 건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문 상담이나 의료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감독을 통해 자격을 갖춘 치료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다.

모두 익히 알겠지만,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덕분에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희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그런 도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힘이 될 것이다. ■

주

1. David A. Bednar, "By Small and Simple Things Are Great Things Brought to Pass" (Brigham Young University Women's Conference address, Apr. 29, 2011), womensconference.byu.edu



여러분은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와 복음 자료실 앱에서 우울증, 불안 및 다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성인들의 경험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온라인 기사들을 살펴본다.

- 핀란드의 한 청년 성인이 자신의 정신적인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 자살 충동으로 고군분투하던 또 다른 청년 성인이 다른 사람들이 삶을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는 14가지 방법을 나눈다.
- 필리핀의 한 청년 성인이 스스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구할 용기를 찾은 이야기를 전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입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시편 127:3)이

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써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 선언문은 1995년 9월 23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말씀의 일부로 낭독한 것이다.

청년 성인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번 호에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것에 관한
조언과 이야기를 찾아보자.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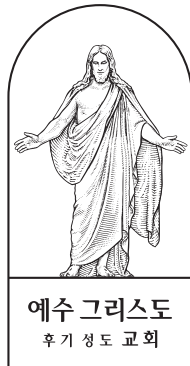


청소년
연차 대회 동안 기록하기

학습 노트

부모
연차 대회를 위한 활동

친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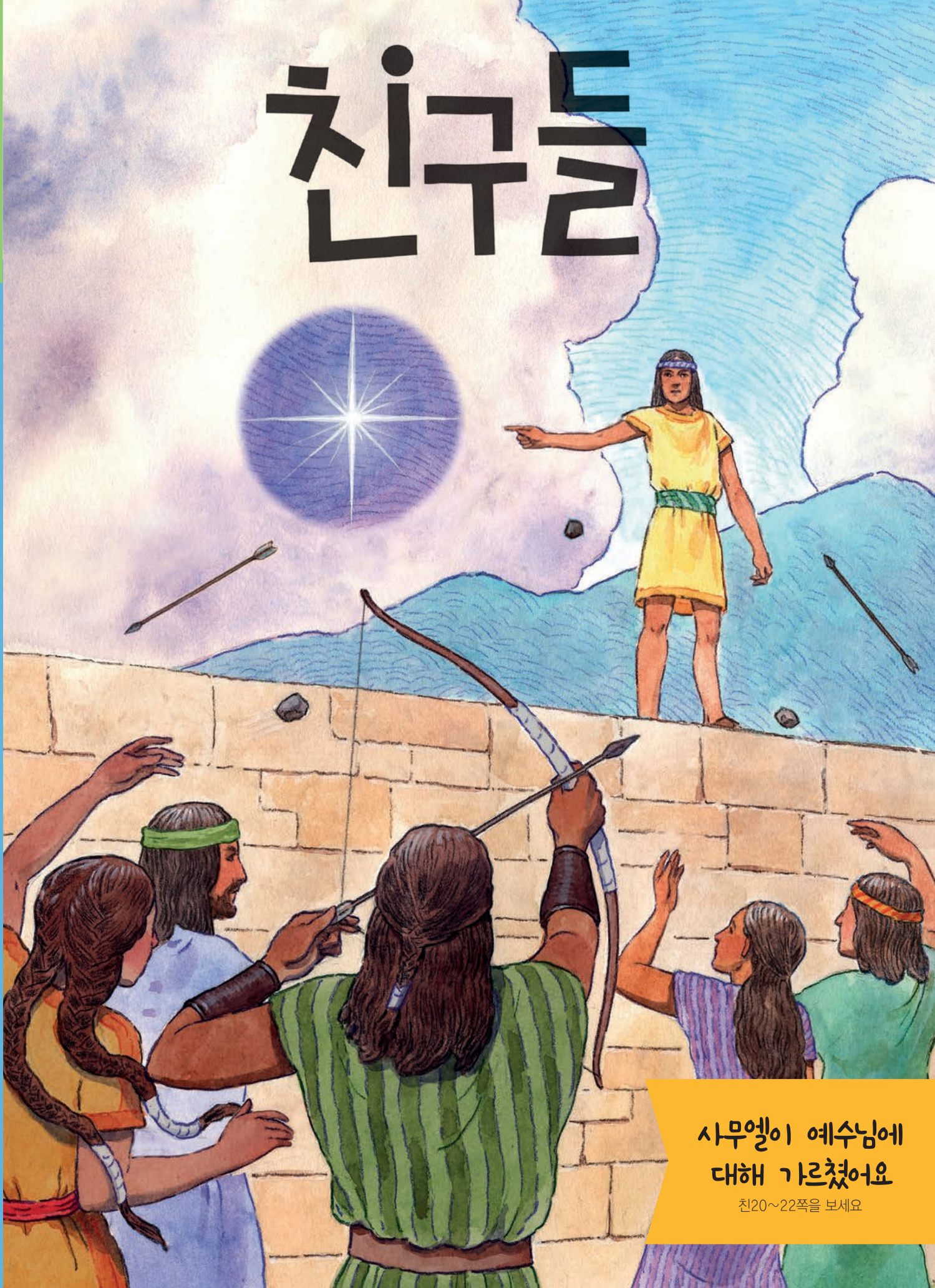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KOREAN
4 02167 24320 5

친구들

『리아호나』 어린이 색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사무엘이 예수님께
대해 가르쳤어요

친20~22쪽을 보세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

선 지자 엘마는 백성들에게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모사이야서 18:21) 가끔은 가족 안에서 단합을 느끼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의 어린 아들은 자기 침대 위에서 펼쩍펼쩍 뛰적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뛰어서 정말이지 침대가 무너질 듯했습니다! 저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으로 성신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위대한 사람을 들고 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조심스레 침대에 내려놓고 사과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위대한 남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듯이 그분의 자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성신에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는 물론, 서로에 대해 생각할 때도 성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가족 안에 더 많은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5~18쪽에서 가져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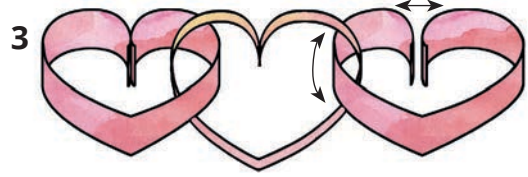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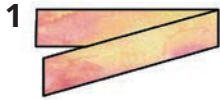


심화: 윌리엄 허버트

사랑 안에서 자라기 위해

아래의 문장들을 띠 모양으로 오려 내어 용기에 담으세요. 띠에 적힌 활동 중 하나를 실천할 때마다 띠를 이어서 여러분의 하트 사슬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1. 띠를 반으로 접는다.
2. 종이 끝을 함께 구부려서 하트 모양으로 만든다. 끝을 종이찍개나 테이프로 붙인다.
3. 사슬을 만들기 위해, 다음 하트의 끝을 첫 번째 하트 안쪽으로 넣은 다음, 종이찍개나 테이프로 붙인다.



여러분이 도울 일이 있는지 물어본다.

재미있는 추억에 대해 들려준다.

가족 중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사랑을 담아 짧은 편지를 쓴다.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본다.

간식이나 음료수를 가져다준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이야기해 준다.

놀이나 산책을 함께 한다.

필요한 순간에 “미안해요”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가족이 사랑을 더 많이 느끼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따뜻한 물 한 컵

박민정
(실화에 근거함)



민준이와 아빠는 땀땀 불어대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등지고 서둘러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건물 안도 바깥처럼 쌀쌀했어요. 민준이는 사람들이 어서 모여서 건물 안이 더 따뜻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민준이의 친구 정민이가 침례를 받을 거예요. 정민이는 자매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나서 오랫동안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모든 와드 회원이 정민이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마침내 정민이는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민준이와 아빠가 들어갔을 때는 침례탕에 물이 채워지는 중이었어요. 두 사람은 민준이의 친구 제임스 옆에 앉았어요. 곧 정민이가 하얀색 침례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정민이가 조금 긴장한 것 같아.” 제임스가 말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는 친구를 위해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요.

곧 침례탕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이제 침례식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침례식을 시작하지 않고 회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빠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아빠에게 여쭙었어요.

“건물 온수기가 고장이 나서 침례탕의 물이 매우 차갑다고 하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침례탕을 바라보았어요. 민준이가 침례받던 날은 날씨도 따뜻했고 물도 따뜻했어요.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빠가 따뜻하게 안아 주시기도 했지요. 민준이는 이렇게 추운 겨울날 차가운 물 속에서 침례를 받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는 침례를 줄 케크 장로님과 함께 용감하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정민이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요!” 정민이가 말했어요. “더는 여기 못 있겠어요.” 정민이는 벌벌 떨면서 침례탕 밖으로 나왔어요. 민준이는 그런 정민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몇 분 뒤, 정민이는 다시 물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몇 걸음만 들어갔다 서둘러 다시 나왔어요. 정민이는 두 번 더 시도해 보았어요. 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그만하면 안 돼요?” 마침내 정민이가 말했어요. 정민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침례탕의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때, 민준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침례를 미뤄야 할까요?” 모두들 정민이를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때, 민준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민준이는 제임스를 팔꿈치로 꼭 짚렸어요. “제임스, 가자!”

민준이와 제임스는 주방으로 갔어요. 들은 커다란 컵과 그릇을 찾은 다음,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예배실로 가져가서 침례탕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민준이의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누군가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와 침례탕에 붓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냄비에 물을 끓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냄비를 들고 복도를 가로질러 가서 침례탕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한 번에 한 컵씩 옮기며 거들었죠.

마침내 침례탕의 물이 따뜻해졌어요. 정민이와 케크 장로님은 침례탕 깊숙이 들어갔어요. 케크 장로님의 침례 기도를 듣자 민준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민이는 물 밖으로 나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민준이는 옷을 갈아입고 나온 정민이를 힘껏 안아 주었어요. 민준이는 용기를 내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준이는 이 침례식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

글쓴이는 한국 서울에 산다.



정민, 선교사들, 그리고 물을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과테말라예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마고와 파올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과테말라로 떠나
볼까요!



과테말라는 중앙아메리카에 있어요.
과테말라에는 약 1,7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그중 우리 교회의 회원은
약 30만 명 정도가 있어요.

이 소년은 가족을
위해 장작을
나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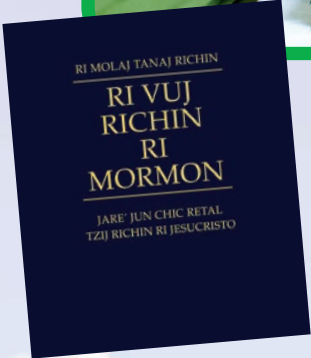
과테말라에서는 화려한 색의
버스를 많이 타요.



밝은색 깃털을 가진 quetzal [케트살]은
과테말라의 국조예요. 'Quetzal
[케트살]'은 과테말라에서 쓰는 화폐의
이름이기도 해요!

과테말라에는 화산이 30개나 있어요.
그중 3곳은 활화산이에요! 이 화산은
2015년에 폭발했어요.

과테말라에 사는 이 가족은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경전 공부를 하나요?



이것은 각치켈어 물문경의 표지예요! 각치켈어는 과테말라의 18개 토착어 중 하나예요. 과테말라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예요.

과테말라의 일부 가정에서는 **pilas** [필라스]라는 화려한 색의 야외 싱크대에서 설거지나 빨래를 해요.



과테말라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보세요!



엄마가 직장을 잃으셨을 때, 교회 회원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음식을 나눠 주셨어요. 그때 저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다르윈 엠, 9세, 과테말라 솔룰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도 친구들에게 물문경에 대해 소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문경에 제 간증을 써서 친구들에게 주었어요. 친구들이 물문경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마음이 행복했어요. **히메나 엘, 9세, 과테말라 사카테페케스**

과테말라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와 함께 과테말라를 탐험해 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



다나와 수학 시험

루시 스티븐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10:5)

“다나.” 엄마가 부르셨어요.
“학교 갈 준비는 다
했니? 경전 암송할 시간이야!”
“네 잠시만요!” 다나는
화사한 색깔의 책가방에
수학책을 밀어 넣은 뒤 가방을
어깨에 걸쳐 땀어요.

다나의 가족은 매주 새로운 경전 구절을 암기하고, 매일
학교에 가기 전에 함께 성구 암송 연습을 해요. 엄마는 새로운
경전 구절을 배우는 일은 마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면, 언제든
필요할 때 떠올릴 수 있거든.”

다나와 여동생들은 현관에 선 채 이번 주 경전 구절을
되풀이해서 읊었어요.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이 구절이었죠.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 다나와 동생들은 함께 이 구절을 암송했어요.

“승리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나의 여동생
타티아나가 물었어요.

“내가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지!” 다나가 말했어요.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단다.”

다나는 서둘러 등교하면서
마음속으로 경전 구절을
반복해서 외웠어요.

그날 오후, 다나의 선생님은
교실 앞에 걸린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된 과테말라 국기
옆에 서셨어요. “이제 수학
시험을 시작할 거예요.” 모랄레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 주기
시작하셨어요.

다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또 잘했어요! 다나는 이번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을 잘 볼 자신도 있었어요.

다나는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자신 있게
답을 적어 내려갔고, 이제 마지막 몇 문제만 더 풀면 되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문제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과연 다나가 수학
시험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다나는 연필을 들고 문제를 다시
읽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

다나는 숨을 깊히 들이쉬었어요. 그런 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배운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다나는 시험지를 다시 보았어요. 이미 푼 문제를 살펴본 다음, 어려운 문제를 다시 찬찬히 읽어 보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이 생각났어요! 초조했던 마음도 스르르 풀렸어요. 다나는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에 다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문제 푸는 방법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나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경전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언니가 승리자가 된 거야!” 타티아나가 말했어요.

다나는 웃으며 맞장구쳤어요. “맞아! 어떤 점수를 받게 되든,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나는 엄마와 타티아나를 꼭 껴안았어요. 다나는 다음 주에는 어떤 경전 구절과 친구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





리사 엘 하크니스 자매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
1보좌

하늘 부모의 자녀



비록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경험이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부모의 자녀입니다!

언젠가 저는 남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허밍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소절 뒤부터는 청중석에 앉아 계시던 자매님들도 노래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자매님들의 노래가 저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여행에서 저는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일요 영적 모임에서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들 도시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온 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인 바람에, 통로에도 의자를 더 놓아야 했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성들에게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의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초등회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주 계속해서 스스로 교회에 옵니다. 초등회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서로 국가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언어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신앙 면에서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을 보았을 때, 저는 그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늘 부모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모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하늘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

아브리 아이어의 “코든 자매와 하크니스 자매가 아프리카 여성이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라고 말한다”, 『교회 소식』, 2019년 6월 11일 기사에서 가져옴.



교회를 이끄는 여성들



이 그림들을 색칠한 다음, 연차 대회 동안 연단 위에 있는 자매님을 한 명 한 명 찾아보세요. 이분들 중 어떤 분들이 연차 대회에서 말씀이나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그분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나요?



리사 엘 하크니스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조이 디 존스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미셸 디 크레이그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
본부 청년 회장



베키 크레이븐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쉐런 유뱅크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진 비 빙엄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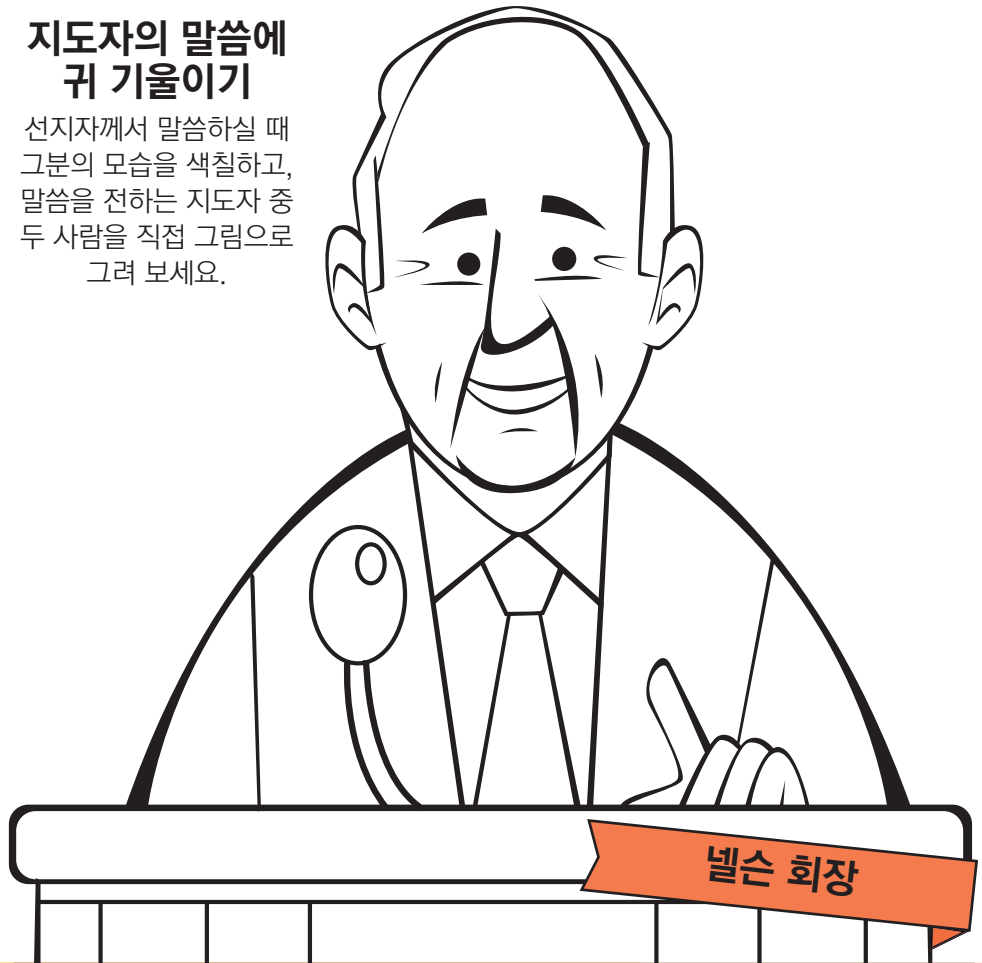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내 연차 대회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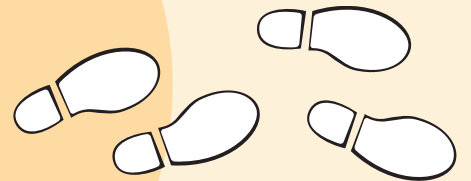
지도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선지자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모습을 색칠하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중
두 사람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예수님 따르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때마다
한 쌍의 발자국을 색칠해 보세요. 주님께
달을 때까지 계속해서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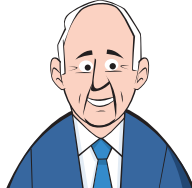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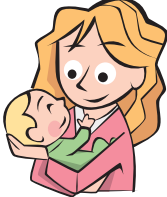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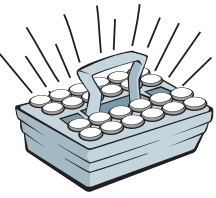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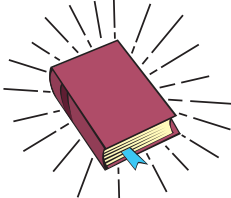



여성 총회를 시청했나요?

이번 호 『친구들』 11쪽에서 교회를 이끄는 여성들의 그림을 찾아보세요!

내가 들은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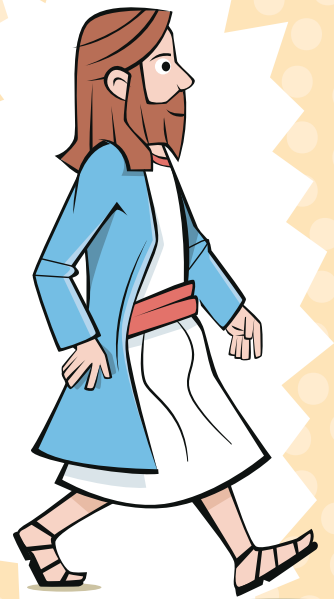
아래에 그려진 것들에 대한 말씀이 들리면, 그 그림에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들은 다른 단어를 빈칸에 그려 보세요.



아름다운 음악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 음표들을 따라 그려 보세요. 그런 다음, 색칠해 보세요!



상화: 레미, 시미드



가장 중요한 일

린다 지 폴슨
(실화에 근거함)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누가복음 22:27)

아 멜리아는 할머니 댁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동물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할머니의 보드랍고 키텐담요에 파묻히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놀기 위해 할머니 댁에 가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은 할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 가는 거였어요.

가는 길에 아멜리아의 언니들은 서로 어떤 일을 맡아 할지 상의했어요.

사라 언니는 빗자루질을, 에밀리 언니는 걸레질을 하고 싶어 했어요. 엄마는 알리사 언니에게 창문 청소를 부탁하셨어요.

“저는요?” 아멜리아가 엄마께 여쭙었어요. “먼지를 털까요?”

“너에게 맡길 특별한 임무가 있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 들어 주었으면 해.”

아멜리아는 엄마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다렸어요. “네, 듣고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면 돼요?”

“방금 말한 그걸 하면 돼!”

엄마는 웃음을 터트리며 말씀하셨어요. “잘 듣는 게 오늘



네 이야야. 할머니 옆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어 드리면 돼. 우리가 오늘 할 일 중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멜리아는 의아했어요. 먼지를 터는 게 더 진짜 일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멜리아는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아멜리아의 가족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모두들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어요. 아멜리아는 소파로 가서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아멜리아는 구석에 놓여 있던 토끼 인형을 발견했어요. “저 토끼 귀여운데요?”

아멜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셨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던가? 이 할미의 오빠인 멜과 아끼 토끼 이야기 말이야”

아멜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토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멜 오빠가 아빠 엄마 없이 혼자 있는 아기 토끼를 발견했었지. 오빠는 토끼가 다치지 않도록 자기

셔츠 안에다 품어 주었어.” 할머니는 멜 할아버지가 지으신 토끼장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다른 이야기도 기억해 내셨어요. 할머니는 직접 스타라고 이름지어 주셨던 애완 송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는 스타를 타고 다니기도 하셨대요! 아멜리아는 할머니가 송아지 등에 올라타신 모습을 상상하며 킁킁 웃었어요. 할머니가 조그마한 여자아이였던 때가 있었다니, 상상이 잘 안 되었어요.

할머니는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토끼 이야기를 다시 하기도 하시고, 이야기를 중간에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멜리아는 계속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지쳐 갔어요. 엄마와 언니들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앉아서 듣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음이 그치지 않으셨어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몇 분 후, 엄마가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 저흰 돌아가 볼게요.”

“고맙구나, 아멜리아.” 할머니는 아멜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와 주어서 이 할미는 정말 좋았단다!”

아멜리아는 할머니를 꼭 안아 드렸어요. 아멜리아는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아멜리아가 엄마께 여쭙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 줘서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니 아멜리아는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아멜리아는 말했어요. “곧 다시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알리사 언니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멜리아, 이야기 들어드리는 거 어땠어?”

“생각보다 힘들었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는 줄 알았더니까!” “오늘 정말 잘했어, 아멜리아!”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아멜리아가 대답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조금 있었어요. 할머니가 애완 송아지를 키우셨던 거 다들 알고 있었어?”

“아기 소를 말하는 거야?” 사라 언니가 물었어요.

“맞아! 할머니는 송아지 등에 올라타곤 하셨대.” 아멜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송아지 이름은 스타였어.”

아멜리아는 할머니가 해 주신 다른 이야기도 모두 들려주었어요. 할머니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게 된 건 꽤 멋진 일이었어요.

에밀리 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음번에는 바꿔서 해 보자. 나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어!”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우리는 모두 하늘 부모님의
딸과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필요한 존재이며,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사랑받고 있어요!



재미있는 활동

숨은그림찾기

이 어린이들은 이모와 함께 새를 관찰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신기한 새 15마리와 알 10개를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 다른 물건들도 찾아보세요.

삽화: 데이비드 클릭



하나 더: 만물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에는 '새'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_____
뒤표지에서 답을 확인하세요.

아이작과 성전



제인 맥브라이드
실화에 근거함

아이작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썩이며 차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아이작네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특별한 것도 보러 갈 예정이었죠.

“새로운 성전은 언제 볼 거예요?” 아이작이 엄마께 여쭙었어요.

“내일!”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아이작은 싱긋 웃었어요.

아이작네 가족은 마침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어요.

이튿날 아이작은 안식일 복장을 갖춰 입었어요. 일요일이 아닌데도 넥타이를 해야 한다니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작은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 차를 타고 일반 공개 중인 성전으로 떠났어요. 아이작네 가족은 헌납을 앞둔 새로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구경할 계획이었어요.

“성전이 보여요!” 아이작이 모로나이 천사가 꼭대기에 서 있는 흰색 건물을 가리켰어요.

그 옆에는 교회 건물도 있었어요. 아이작네 가족은 교회로 먼저 들어갔어요. 거기서 동영상 하나 보고, 안내해 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 신발 위에 하얀 천으로 된 덧신을 신었어요.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가 볼 시간이예요! 아이작은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작은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벽에는 그림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동식물 등이 그려진 그림들이었죠.

그러다 아이작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찾았어요. 바로 예수님 그림이었어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작이 아빠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도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시지.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거든.”

아이작은 마음속에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작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그분이 자기를 안아 주시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예수님은 아이작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아이작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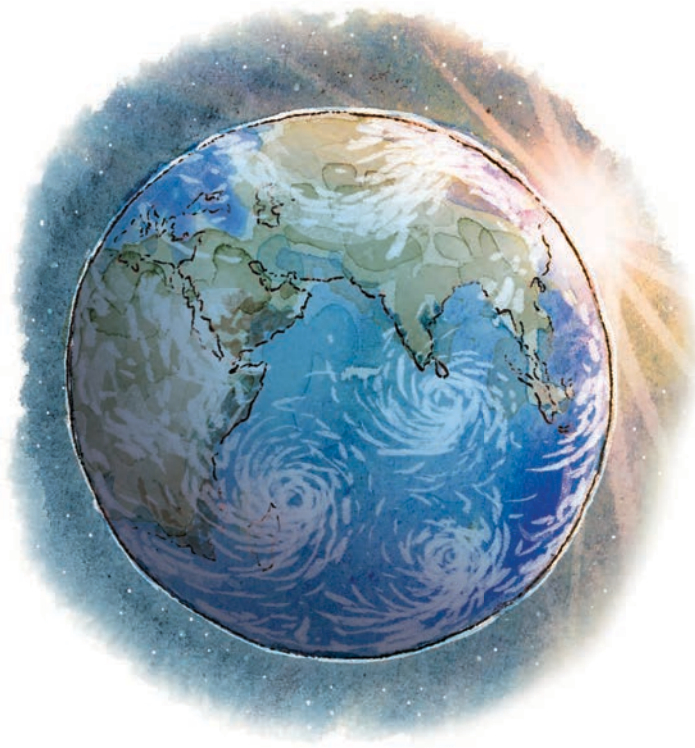
미 대륙에 오신 예수님



몰몬경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어요. 그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밝고 새로운 별이 뜰 거라고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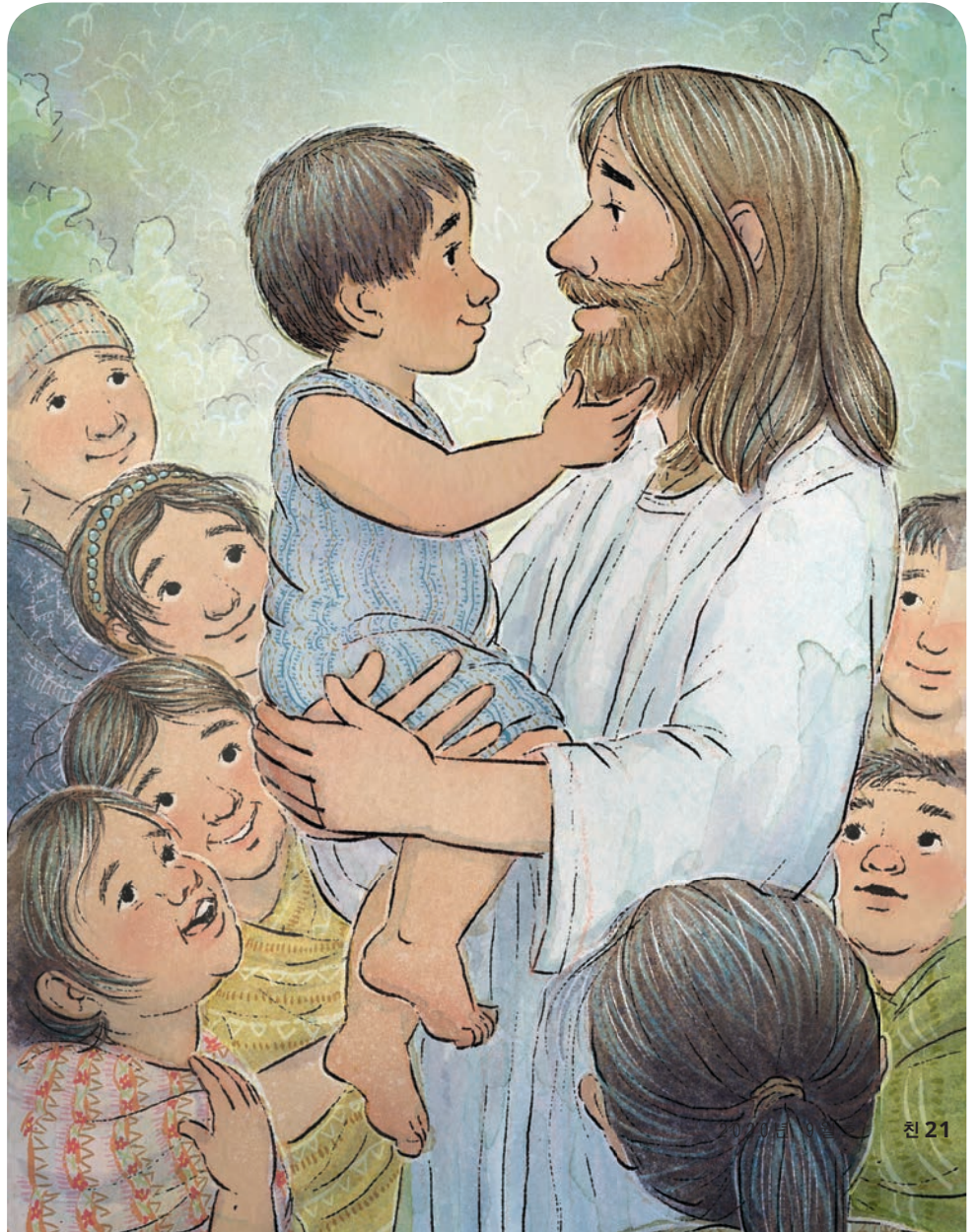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믿고 그 별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밤, 하늘에 새로운 별이 나타났어요! 그건 예수님이 먼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표적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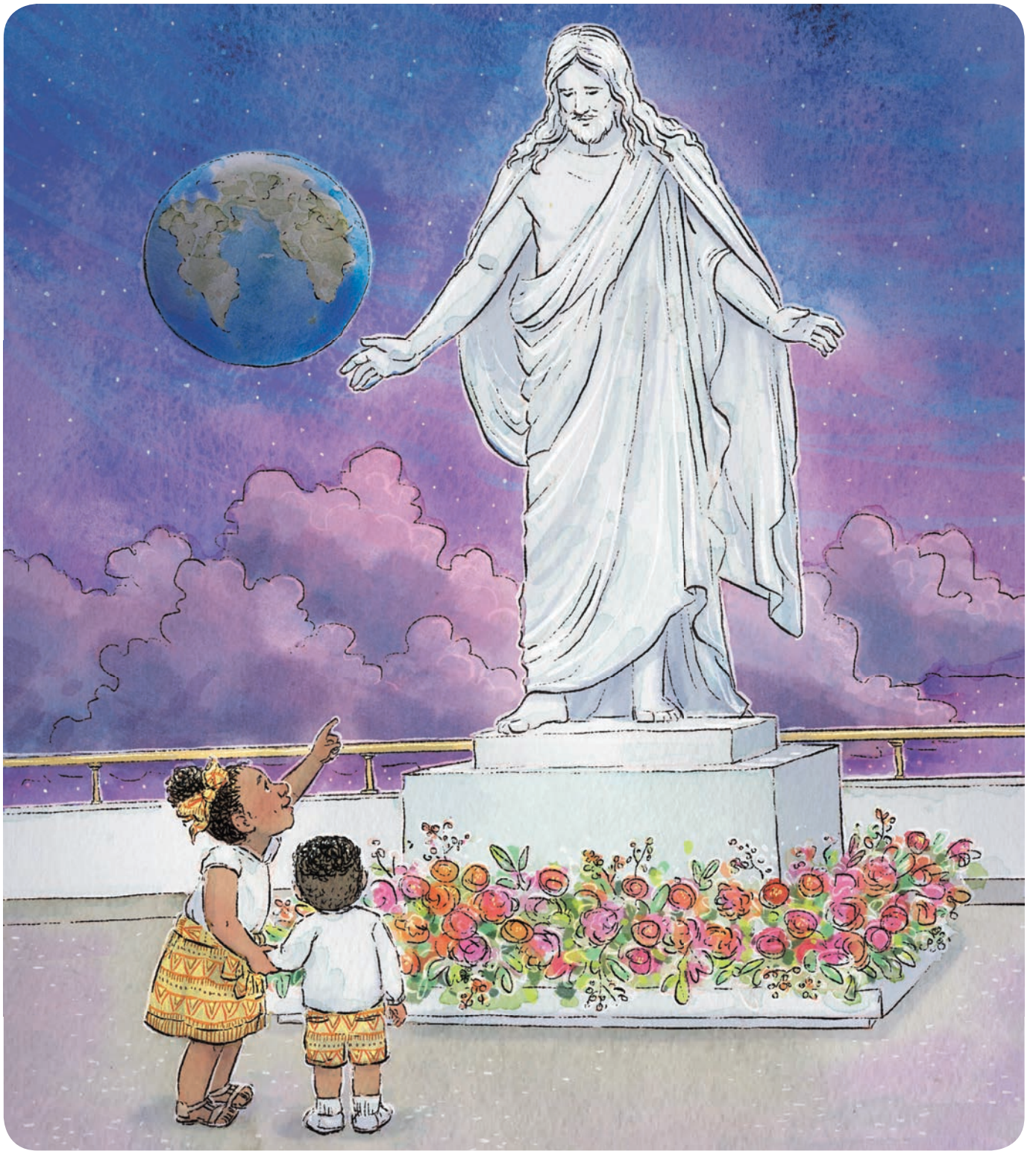




세월이 흐른 뒤, 온 땅이 슬픔에 빠진
것만 같은 날이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휘몰아쳤죠.
그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표적이었어요.

사흘 동안 온 땅은 캄캄한
어둠에 휩싸였어요.
그런 다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차례로 시간을
보내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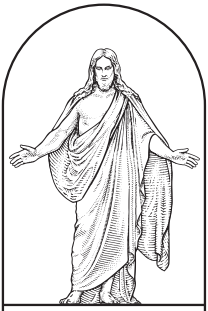
예수님은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둡고 무서울 때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힐라맨서 14장과 제3니파이 1장 8~11절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

예수님이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나요? 우리는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다음 달에는 연차 대회가 열립니다! 연차 대회 동안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친11~13쪽에 나오는 활동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 그리고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것이며, 여성 총회에서는 여성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도우며 교회를 이끈다는 사실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친11쪽과 친16쪽을 활용하여 소년과 소녀가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는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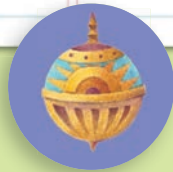
연차 대회가 여러분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자녀의 예술 작품이나 경험을 『리아호나』에 보내고 싶습니까?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또는 자녀의 이름과 나이, 거주 지역, 그리고 "나 [부모의 이름]는 내 자녀가 제출한 자료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교회 잡지, 교회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기타 교회 자료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문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17쪽 답: 다섯 번



책 안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목차

- 찬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
- 찬4 따뜻한 물 한 컵
- 찬6 안녕하세요? 여기는 과테말라예요!
- 찬8 다나와 수학 시험
- 찬10 친구가 친구에게: 하늘 부모의 자녀
- 찬11 교회를 이끄는 여성들
- 찬12 내 연차 대회 노트
- 찬14 가장 중요한 일
- 찬16 빛나는 아이디어
- 찬17 재미있는 활동: 숨은그림찾기
- 찬18 아이작과 성전
- 찬20 경전 이야기: 미 대륙에 오신 예수님
- 찬23 색칠하기: 예수님이 니파인들과 레이맨인들을 방문하셨어요

